

고등학생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박 영 신¹⁾

김 의 철²⁾

신 영 이³⁾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고등학생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데 있다. 나아가서 자녀의 효도가 부모의 자녀양육효능감 및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은 고등학생의 부모 866명(부 433명, 모 433명)이었다. 자녀양육효능감 척도는 Bandura(2000)가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자녀의 효도와 가정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들은 박영신과 김의철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 행동으로는 순종이 가장 중요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를 아껴줌이었고, 이외에도 부모를 도와줌, 애교 부림, 학업충실, 성실함, 잘 성장함이 포함되었다. 둘째,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관련 언어 표현으로는 다정한 표현 및 예의바른 표현이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이외에도 격려의 표현, 순종하는 표현, 기대해 달라는 표현,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표현이 주를 이루었다. 셋째, 자녀가 효도하지 않았을 때의 마음으로는 서운함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외에 패심함, 자기반성, 자녀에 대한 이해, 실망함, 답답함과 같은 마음을 부모들이 느꼈다. 넷째, 자녀가 효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인간의 도리이라는 반응이 거의 반 정도 되었으며, 이외에 혈연관계, 올바른 인간형성, 가정화목, 자녀에게 도움이 됨, 부모의 희생에 대한 보답이 포함되었다. 다섯째,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불효로는 순종하지 않음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나쁜 행동, 기대에 미치지 못함, 마음을 아프게 함, 부모를 무시함, 학업소홀, 불성실함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섯째, 가장 감동적인 자녀의 효도로는 학업충실의 반응율이 제일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순종, 성실함, 부모를 아껴줌, 정다운 행동, 다정한 말, 잘 성장함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 부모의 자녀 효도에 대한 지각을 통해, 한국인의 효도와 관련된 토착심리가 논의되었다. 한편 자녀의 효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 한 결과는, 자녀의 효도가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의 효도는 부모의 자녀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매개변인으로서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자녀의 효도가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가정경제수준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전체효과의 2배 이상이었다. 자녀의 효도와 이로 인해 증진된 부모의 자녀양육효능감은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매우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효도, 토착심리, 순종, 학업충실, 자녀양육효능감, 가정생활만족

1) 본 논문은 2008년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논문을 확장한 것임.

2) 교신저자 :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mail : yspark@inha.ac.kr)

3)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4)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I. 서 론

송산: “당신은 누구세요?”

현각: “제 이름은 Paul입니다.”

송산: “그건 당신 몸의 이름입니다. 누군가, 즉 부모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진짜 이름을 알고 싶은 겁니다.”

현각: “-----”

현각(2000) p.192

Paul은 송산을 만난 뒤 큰 충격을 받고 자기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해 구도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현각, 2000). Paul 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며, 자기로서의 일관된 정체감을 갖고 살아간다. 그러나 송산의 물음과 같이 조금만 깊게 질문해 들어가면, 과연 자기자신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또한 아는 것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마 한국 사람들에게 효도라는 단어는 진부할 정도로 너무나 익숙해서, 특별히 연구해야 할 주제로 인식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효도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주위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고, 그것을 가치롭게 여기는 문화적 풍토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효도 또는 불효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하기는

어렵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과학적 검증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명확한 설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효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유된 사회적 표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한 체계적인 규명과 객관적인 증거가 그리 많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효도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생활하지만, 막상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표현하는 언어나 행동 및, 이러한 효도와 관련하여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정서가, 체계적으로 검토되거나 정리된 경우가 흔치 않다. 물론 사서삼경 등 고전을 기반으로 유학 분야에서 효도에 대한 분석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현대 심리학 분야에서 심리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되어 오지는 않았다. 그것은 현대 심리학이 주로 서양에서 출발한 심리학적 개념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Kim & Park, 2004), 한국인의 토착적인 심리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음에도 기인한다.

둘째로는 시대 변화와 세대차 요인의 작용으로 설명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사실이다. 조선시대 등 과거 사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던 정신적 가치로서의 효도와, 현재 글로벌 시대, 정보화 시대 또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라고 명명되는 2000년대 초엽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표상하고 있는 효도에 대한 사회적 표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기업도 다국적 기업의 형태가 나타나는 등 지구촌 가족이기도 하지

만, 동시에 세계 속에서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 한국인의 삶에서, 효도가 어떠한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역동을 부모자녀관계 내에서 일으키는가에 대해, 뚜렷한 과학적 증거들에 기초한 설명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효도가 한국인의 기본적인 정신 가치 중의 하나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그러나 유교가 통치철학이었던 시대의 충효정신과 삼년상을 치를 정도의 효도에 기반을 둔 삶의 표현 방식이 존재하던 시대와, 현대인의 삶의 환경은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시대와 사회변화에 따른 정신적 가치의 내면과 외포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효도에 대한 생각은 현대와 조선시대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현대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과 부모 사이에도 현저한 세대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고등학생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인 부모자녀관계에서 작용하는 토착심리를 이해하는데 있다. 나아가서 자녀의 효도가 부모의 자녀양육효능감 및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중요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결과들이 많이 누적되어 왔다. 예컨대 정명진, 김광웅과 조유진(200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아동들이 어머니에 대해 갖고 있는 표상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중요한 예언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어머니가 강압적이고 비판적이기보다 보살피며 감싸준다고

긍정적으로 표상할수록, 아동이 대인관계에 적응하고 주도적이며 인기가 있는 등 더 높은 사회적 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간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모자녀관계를 한국인의 토착심리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일련의 노력이 있어 왔다. 박영신과 김의철(2004a, 2004b)은 부모자녀관계를 자기개념, 신뢰의식, 성취, 스트레스, 이탈행동 등의 다양한 주제와 관련하여 검토한 바 있다.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를 접근함에 있어 문화적인 통찰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 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김경은과 박연정(2008)은 유계숙과 정현숙(2002)이 개발한 부모됨 동기 척도 5개를 다시 요인분석하여, 3개의 요인(혈연유대적 동기, 정서적 동기, 전통적 동기)으로 추출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러한 부모됨 동기의 하위변인들을 비교한 결과, 혈연유대적 동기가 가장 높았고, 전통적 동기가 가장 낮았다. 그러므로 현대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들이 부모가 됨으로써 성인으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는 전통적인 동기가 낮지만, 자녀를 통해 혈연을 강화하려는 생각은 여전히 매우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는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풍토가 젊은 세대들에게도 여전히 의미있게 내면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혈연관계에 대한 인식은 한국인의 신뢰의식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즉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이유는 부모의 희생 다음으로 부모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부모가 보호관찰청소년인 자녀를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식이기 때문이었다(박영

신, 김의철, 2005). 이와같이 부모이기 때문이라든가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신뢰를 하는 것이지, 신뢰의 별다른 이유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한편 임정하(2006)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발달특성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관심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기여하고, 어머니의 가르침은 자녀의 사회적 책임감 발달에 기여하며, 아버지의 불신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책임감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임정하(2006)는 청소년의 지각을 중심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보다는 부모의 지각이나 제3자의 보고를 바탕으로 양육행동을 측정하여 청소년 발달특성과 관련지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부모들의 직접적인 응답을 통해 부모들의 양육신념체계와 양육행동을 탐색하고자 한 연구 결과가 있다. 윤종희(2007)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자녀가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자질에 대해 질문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 모두 근면성과 성실함이 2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문성, 지식, 실력, 공부습관과 같은 학습습관 및 지적성취와 관련된 자질과, 친구관계와 같이 인간관계에 관련된 자질이 각각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자녀에게 가장 권장하는 행동으로는 건강, 정직성과 도덕성, 근면성과 성실함, 부모공경과 가족우애의 네 덕목이 각각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가 일상생

활에서 금지하는 행동으로는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거짓말이나 도둑질 않기, 예의없는 싸움이나 욕이나 말대답이 각각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이상적인 아동관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근면 성실 및 학습습관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강조하는 덕목으로는 건강과 정직과 성실이 핵심이며, 화목한 가정을 위해 부모공경과 가족우애임을 알 수 있다.

문용린, 원현주, 백수현과 안선영(2008)이 부모가 지각한 아동의 성격을 기술하는 용어들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표적인 성격의 강점으로 공경심을 포함하는 사회성, 배려와 돌봄을 포함하는 친절함, 자제력과 실천력을 포함하는 자기조절이 각각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집중력을 포함하는 학구열, 노력과 끈기를 포함하는 인내심 등도 대표적인 성격의 강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공정함은 성격을 기술하는 용어로 전혀 지적되지 않았음에 주목하고, 문용린 등(2008)은 서양에 비해 한국 문화에서 부모들이 아동의 공정함을 강조하지 않는 것에 기인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의 자녀 강점에 대한 인식에 문화적 특수성이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문화특수적이고 토착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효도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고자 한다. 부모자녀관계를 효도의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시사되어 왔지만(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

Park, 2002), 실제로 많은 경험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누적되지는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효도에 대한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분석하는 토대를 토착심리학의 철학과 연구방법(Kim, Yang & Hwang, 2006)에 두기로 한다. 스트레스 등 그동안 일반 심리학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구인들이 토착심리 접근방법에 의해 연구되어 왔지만(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이 연구는 토착적 주제로서 효도를 다루는 연구라는 차별성이 있다. 토착적 접근과 토착적 주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정리되어 왔다(박영신, 김의철, 2003; Kim & Park, 2004).

많지는 않지만 효도를 경험과학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검증하는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 최경숙(1998)은 효 의식과 효 행동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한국 기혼 여성들이 시부모와 친정부모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요인분석을 통해 효 의식을 대표하는 요인들을 추출한 결과, 인간의 도리 요인, 부모와 밀접한 유대관계와 애정 요인, 효도는 아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과 같은 전통적 가치의식 요인, 자기가 잘되는 것이라는 소극적인 의미의 요인, 정서적 봉양 요인, 경제적인 요인, 체면 때문에 효도를 한다는 부담 요인으로 정리되었다. 또한 효 행동을 요인분석한 결과는 부모를 보호하고 실제로 돌보아 드리는 요인, 경제적 봉양의 요인,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예의적인 요인, 부모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요인, 부모와 거리상으로 가깝게 모시고 사는 요인,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고 편안히 해 드리는 요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요인으로 분류되

었다.

이와같이 성인이 노부모에 대해 어떠한 효도를 하느냐의 측면이 아니라,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어떠한 효도를 하느냐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있다.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에 대한 효도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한 장우귀와 박영신(2006)의 결과에 의하면, 아버지에게 효도를 표현하는 말로서는 존댓말과 같은 예의 바른 표현과, 힘내세요와 같은 격려의 표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에게 효도를 표현하는 말로는 아버지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존댓말과 같은 예의바른 표현을 가장 많이 했으나, 이 외에 도와드리겠다는 표현과 사랑해요와 같은 다정한 표현들을 많이 하였다. 또한 아버지에게 하는 효도의 행동으로는 안마해 드리기와 같은 부모를 아껴주는 행동과, 스스로 공부하기와 같은 학업에의 충실, 그리고 순종적인 행동들이 대표적으로 포함되었다. 어머니에게 하는 효도의 행동으로는 집안일 등을 통해 어머니를 도와주는 것이 현저하게 많았다. 그 다음으로 안마해주기와 같이 부모를 아껴주는 행동, 순종하기, 학업충실이 포함되었다.

정부용과 박영신(2006)이 초등학생이 효도하지 않았을 때의 마음을 분석한 결과 남녀 학생 모두 죄송함에 대해 과반수의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또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질문하였을 때, 낳아주었다는 혈연관계와, 길러 주었다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한편 고등학생이 부모에게 하는 효도행동을 분석한 결과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순종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집안일 돕기가 가장 대표적

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도의 언어표현으로는 부모에게 존댓말하기와 같은 예의바른 표현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사랑해요와 같은 다정한 표현,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표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신영이, 김의철, 박영신, 2008).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효도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응답한 순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인 반응 범주에서는 상당한 공통 분모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신영이, 김의철, 박영신, 2008; 장우귀, 박영신, 2006; 정부용, 박영신, 2006)은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에 대한 효도관련 의식과 표현과 행동을 다루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지각만이 아니라 부모의 지각을 중심으로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지적한 임정하(2006)의 시각과 일관된 맥락에서, 효도의 토착심리를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에 대한 심리를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부모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논의는 몇몇 연구들에서 시도된 바 있다(Chang, Park, & Kim, 2007; Jung, Kim, & Park, 2007).

나아가서 자녀의 효도가 부모의 자녀양육효능감 및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검증하려고 한다. 이 연구모형의 변인간 경로에 관련된 시사를 제공하는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은 한국 성인의 행복이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한 결과, 가까운 인간관계에서의 정서적 지원이 월평균 수입보

다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4.5배 이었으며, 자기효능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월평균 수입의 약 2배가 되고, 자기효능감은 정서적 지원과 행복 변인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효도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효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박영신과 김의철(2009)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정서적 지원과 행복 사이에서 간접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이 검증됨으로써, 자기효능감이 행복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에서 심리적인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영신, 김의철과 민병기(2002)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의해 매개되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성인의 자기효능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박영신과 김의철(2008)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의 세 하위변인으로 양육어려움극복 효능감, 관계 효능감, 자녀와 의사소통 효능감을 포함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고,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였다. 자기효능감의 심리적 매개변인으로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Bandura(1997)에 의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검증되어 왔다. 박영신과 김의철(2008)의 연구에서 밝혀진 흥미로운 사실은 자녀에 대한 신뢰가 성인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높아진 자기효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를 증진시켰다. 그런데 자녀

신뢰의 구인이 성실, 혈연관계, 순종 및 학업 충실로 구성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자녀가 성실하고, 순종을 잘하며, 학업에 충실할 때, 또한 자녀라는 이유로 인해 자녀를 신뢰하는 마음이 강하면, 부모의 자기효능감이 증진되어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박영신과 김의철(2008)의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신뢰라는 구인은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자녀의 효도와 밀접히 연결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한국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예측함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 성인의 행복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분석한 박영신과 김의철(200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록 월평균 수입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었지만 경로분석 결과 의미있는 변인이 아니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월평균 수입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김의철과 박영신(2006)이 한국인의 삶의 질에 대한 토착심리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 자원으로서 경제력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자녀가 효도를 하면 가정에서 당연히 부모가 높은 가정생활만족도를 갖게 될 것으로 예측되어, 자녀의 효도는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로선이 가정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직접적인 경로 외에도 자녀 효도는 자녀양육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해 간접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자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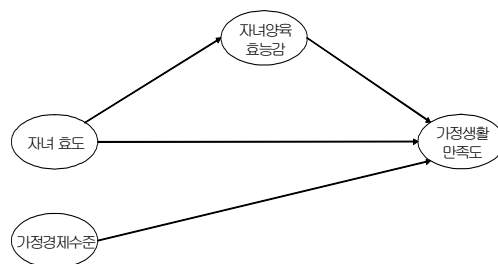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자녀 효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효도는 부모의 자녀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고, 높아진 자녀양육효능감은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킬 것이다. 한편 가정의 경제수준도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었다. 그러나 가정경제수준보다는 자녀의 효도가 가정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정도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를 위한 표집대상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였다. 따라서 남자 고등학교 2개와 여자 고등학교 2개 학교를 표집하여 총 4개를 선정하였다. 1개의 남고(A)와 1개의 여고(C)는 아파트 단지 내에 생활 및 문화수준이 높으며 부모들의 교육열도 높고 교육환경도 좋은 곳으로 표집하였다. 나머지 1개 남고(B)는 공단 지역에, 1개 여고(D)는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부모들의 생활수준도 중간 정도이고,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었다.

표 1. 분석대상		단위(명)		
학교	부모별	부	모	전체
	A	130	130	260
	B	116	116	232
	C	83	83	166
	D	104	104	208
	계	433	433	866

전체 분석대상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총 866명으로 A학교에서 260명, B학교에서 232명, C학교에서 166명, D학교에서 208명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결정되었다. 부모별로는 아버지가 433명, 어머니가 433명으로서 각각 50%로 분류되었다. 평균 연령은 아버지 집단이 46.5세, 어머니 집단이 43.7세였다. 분석대상의 학력별 분포는 고졸 이하가 55.2%(초등학교 졸업, 1.2%; 중학교 졸업, 3.2%; 고등학교 졸업, 50.8%)이었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이 44.8%(대학교 졸업, 39.5%; 대학원 졸업, 5.3%)로서, 학력을 기준으로 두 집단을 분류하였을 때 거의 과반수 내외로 두 집단이 구성되었다.

한편 직업별 분포는 아버지 집단 경우 무직(1.2%) 노동 생산직(20.3%) 판매 서비스직(24.9%) 사무 관리직(35.6%) 고위관리 전문직(18.0%)로 구성되었으며, 어머니 집단 경우 전업주부가 50.6%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나머지 49.4%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어머니 집단의 직업분포는 노동 생산직(12.2%)판매 서비스직(19.2%) 사무 관리직(10.4%) 고위관리전문직(7.6%)으로 구성되었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최상(1.5%) 상(11.9%) 중(77.6%) 하(8.7%) 최하(0.3%)로 정상분포의 형태에 근접하였다. 또한 계층집단

별로도 마찬가지로 정상분포를 이루었다(최상류층, 1.6%; 상류층, 6.9%; 중류층, 81.8%; 하류층, 9.4%; 극빈층, 0.3%).

2. 측정도구

이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다. 자녀의 효도를 측정하는 질문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되었다. 첫째는 배경정보로서, 연령, 부모별(성별), 학력, 직업, 가정 경제수준, 사회 계층이 측정 문항으로 포함되었다.

둘째로 효도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을 위해 6개의 개방형 문항이 제작되었다: (1) 자녀가 아버지(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합니까? (2) 자녀가 아버지(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 어떤 말을 합니까? (3) 자녀가 효도하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4) 자녀가 효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5) 자녀가 어떻게 할 때 불효라고 생각합니까? (6) 자녀가 어떻게 효도할 때 가장 감동됩니까? 이 여섯 개의 질문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응답을 하나씩만 하도록 하였다.

질적 분석표가 연구자들에 의해 확정된 뒤에, 효도에 대한 질적 분석 자료는 다른 데이터를 갖고 직접 질적 분석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숙련된 다른 연구자에 의해 재분석되었다. 이러한 재분석은 6개 개방형 문항 중에서 1개의 문항(‘가장 감동적인 자녀의 효도’ 문항, 표 5 참고)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866개 자료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재분석 되었다. 연구자가 코딩하고 1차 분석한 결과와 완전히 별도로, 다른 연구자가 다시 2

표 2. 측정변인의 신뢰도

변인	문항 수	Cronbach α	문항 예
자녀 효도(*)	3	.90	내가 볼 때 우리 자녀는 효도를 한다
자녀양육효능감	6	.86	당신은 자녀와의 의견차이가 갈등이 되지 않도록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가정생활만족도	4	.85	자녀와의 관계

(*) 표 3에서 표 8은 효도와 관련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분석한 것이며, 표 2의 자녀 효도 변인은 개방형 질문과 별도로 양적 측정을 한 변인으로서 표 9와 표 10에서 분석되었음.

차 분석한 결과들과 비교하여 채점자간 일치도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866개의 응답 중에 815개의 응답이 동일 항목으로 분류됨으로써, 94.5%의 매우 높은 채점자간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셋째, 효도와 관련된 심리와 행동의 양적인 분석을 위한 변인들이 추가되었다. 자녀 효도 변인(문항 수, 3)은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문항은 자녀가 효도하는 정도를 본인, 배우자 및 주위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각각 반응하도록 구성하였다. 5점 척도 상에서 높은 값을 보일수록 자녀가 더욱 효도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양육효능감 변인(문항 수, 6)은 김의철과 박영신(2001)이 Bandura(2000)의 가족효능감 질문지를 번역하여 사용한 질문지 중에서 내용타당도가 높은 6개 문항을 선별하였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로서 양육효능감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측정하였다. 5점 척도 상에서 값이 높을수록 자녀양육효능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정생활만족도 변인(문항 수, 4)은 평소에 가정에서 얼마나 만족하는가 하는 만족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값이 높을수록 만족하고 낮을수록 불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세 변인에 대한 신뢰도를 구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를 보면 자녀 효도는 $\alpha = .90$ 으로 매우 높았으며, 자녀양육 효능감 및 가정생활만족도도 각각 $\alpha = .86$ 과 $.85$ 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3. 실시 및 분석방법

표집된 4개의 고등학교에서 각 반의 담임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응답자들의 성실한 응답을 얻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모두 선물 사례를 하였다. 학생들은 각자 아버지용 질문지와 어머니용 질문지를 2개씩 세트로 전달 받아서 집에 갖고 가서 부모용 질문지를 실시해서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학급수가 많은 2개 학교에는 300개씩, 학급수가 적은 2개 학교에는 250개씩 질문지가 전달되었다. 결과적으로 총 980개의 질문지가

회수되었다(A학교 280개, B학교 260개, C학교 200개, D학교 240개). 그 중에서 양적 질문이나 질적 질문에 대해 응답을 누락한 불성실한 질문지와, 질적 질문에 대해 전혀 질문과 관계없이 장난처럼 엉뚱한 내용을 기록한 질문지들을 제외하였다. 이러한 양호하지 못한 질문지가 114부로 나타남으로써, 성실하게 응답한 총 866부의 질문지만 최종 분석대상으로 확정되었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분석은, 최종 분석대상들의 모든 응답을 입력한 뒤에, 각 문항별로 질적으로 유사한 반응들을 모아서 항목을 구성하고, 각 항목에 적절한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유사한 종류의 항목들끼리 묶어서 하나의 개념 범주를 구성하였다. 개념 범주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범주와 항목의 구성과 명칭은 석사 및 박사 연구원 5명 이상이 수차례 걸친 논의 및 검토 작업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교하게 수정 보완된 범주와 항목들은 효도 관련 개념적 틀로 명명되었다. 양적 문항들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모든 문항들을 입력한 뒤에 상관분석과 경로분석 및 효과분석을 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 표현과 가장 감동적인 효도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 표현은 효도의 행동과 효도의 언어적 표현이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표 3은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 행동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전체 집단의 반응 경향을 보면, 순종 범주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두 번째로 부모를 아껴줌 범주도 20% 이상의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부모를 도와줌과 애교 부림 범주도 각각 10-20% 사이의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이어서 학업 충실 범주는 거의 10% 반응율을, 그 다음으로 성실함 범주가 5-10%의 반응율을 보였다. 이외에 효도행동 안함과 잘 성장함 범주가 포함되었다.

하위집단은 부모별과 학력별로 분석하였다. 부모별로 보면, 아버지 집단은 순종 범주가 거의 30% 가깝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부모를 아껴줌 범주였다. 그러나 어머니 집단은 부모를 도와줌 범주가 거의 2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를 아껴줌, 순종 범주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력별 집단은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두 집단의 반응율을 비교해 보면,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는 고졸 이하의 부모들은 부모를 아껴줌 범주가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순종이 두 번째로 나타났다. 한편 대졸 이상의 부모들은 순종 범주에 대해 30%에 약간 못 미치는 반응율을 보이고, 부모를 아껴줌 범주가 두 번째로서 20%에 약간 못 미치는 반응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에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큰 효도 행동으로 생각한다는 전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에 다른 경향이 있었는데, 아버지들은 고등학생 자녀가 부모를 공

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더욱 효도 행동으로 받아들이는다면, 어머니들은 집안일을 도와주고 심부름을 하는 등 보다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부모를 도와줄 때 더욱 효도 행동으로 생각한다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부모들이 순종을, 고졸 이하의 부모들은 부모를 직접적으로 아껴주는 것을 보다 효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든가 부모를 아껴드리고 부모를 도와드리므로써 부모에 대해 직접적으로 효도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행동 자체를 효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학업에 충실하고, 성실하며, 잘 성장해 주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 세 범주를 합하면, 20.4%에 해당하였다. 즉 10명 중 2명의 부모는 자녀의 가장 큰 효도를 자녀가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효도 행동을 하는 것보다도,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올바르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와같이 부모에게 효도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자신이 잘 성장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효도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반응은 학업충실이였다.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업에 충실한 것이 효도 행동이라고 직접 반응한 경우가 10%나 됨으로써, 고등학생 부모 10명 중 1명은 자녀가 학업에 충실한 것을 효도 행동으로 직접 연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실함 범주에 포함된 성실함이나 스스로 잘함 및 노력 항목들도 모두 간접적으로는 학업과 상당부분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한국 부모들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관심이 매

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한다든가 착하거나 건강하게 자라는 것과 같은 인성적 차원에서 잘 성장하는 것보다도 학업에 충실하여 지적 차원에서 자녀가 성취하는 것을 효도 행동으로 인식하는 부모들이 훨씬 더 많았다.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관련 언어 표현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전체 집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정한 표현 범주가 25.8%로 응답자의 1/4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는 예의바른 표현 범주가 거의 20%나 다름없이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음, 격려의 표현, 순종하는 표현, 기대해 달라는 표현,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표현의 범주가 5-10% 사이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건강하라는 표현, 감사의 표현, 도와드리겠다는 표현이 의미있는 범주로 포함되었다.

표 4에서 부모별 분석 결과를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 집단 모두 다정한 표현 범주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예의바른 표현 범주인 점에서 순위는 일치하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버지 집단보다 다정한 표현 범주에 대한 반응율이 더 높은 경향을, 아버지는 어머니 집단보다 예의바른 표현 범주에 대한 반응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임으로써, 순위는 일치하였지만 반응율의 비중에 차이가 있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 집단 모두 다정한 표현 범주에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예의바른 표현 범주가 부각되는 점에서 순위가 일치하였다. 그런데 반응율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고졸 이하 집

단이 다정한 표현 범주에 대한 반응율이 상대적으로 많고, 대졸 이상 집단은 예의바른 표현 범주에 대한 반응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다정한 표현을 할 때 부모들은 그것을 가장 효도의 언어적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명 중 1명은 정이 흐르는 정겨운 언어적 표현이 효도의 가장 대표적인 말로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부모에 대해 자녀의 예의바른 표현이 효도의 언어적 표현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전체 반응율의 거의 1/2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볼 때 자녀가 다정하게 표현하거나 예의바르게 표현하면 그것이 효도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두 명 중에 한 명 정도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관련 언어 표현을 정리해 보았을 때, 다정한 표현과 예의바른 표현 외에도, 격려의 표현, 순종하는 표현, 기대해 달라는 표현,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표현, 건강하라는 표현, 감사의 표현, 도와드리겠다는 표현과 같은 범주들이 드러남으로써, 총 10개나 되는 대표적인 언어적 표현들이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언어적 표현들은 한국 사람들이 효도를 표현하는 간접적인 언어가 매우 다양하고, 정교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언어 표현들 중에 기대해 달라는 표현과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표현은, 앞에 기술한 7가지 표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두 표현은 앞서 기술한 표현들처럼 부모와 직

접 관련된 표현이라기 보다는, 자녀가 자기 자신과 관련된 표현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자녀가 앞으로 잘 하려고 하니 기대해 달라고 표현하거나, 심지어는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표현을 할 때, 한국 부모들은 그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의 표현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다.

표 3과 표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효도의 행동과 효도관련 언어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감동하는 자녀의 효도는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집단의 반응을 보면, 학업충실 범주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순종 및 성실함 범주도 모두 20%에 가까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부모를 아껴줌과 정다운 행동이 10% 이상의 반응율을 보였고, 이외에도 다정한 말 범주와 잘 성장함 범주가 포함되었다.

부모별 하위집단을 보면 아버지 집단은 순종 범주에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성실함과 학업충실 범주가 모두 비슷하게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어머니 집단은 학업충실에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는 차이가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성실함과 학업충실이 마찬가지로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반응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반응 순서의 면에서 볼 때 아버지 집단은 순종을 어머니 집단은 학업충실을 더욱 감동적인 효도로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집단은 학업충실, 성실함, 순종 범주의 순서로 응답하였다면, 대졸 이상 집단은 순종, 학업충실, 성실함 범주의

표 3.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 행동

범주	부모	전체(%)	부모별		학력별	
			부(%)	모(%)	고졸 이하(%)	대졸 이상(%)
1. 순종		207 (23.9)	127 (29.3)	80 (18.5)	100 (20.9)	107 (27.6)
① 부모에게 순종함		99 (11.4)	59 (13.6)	40 (9.2)	52 (10.9)	47 (12.1)
② 예의 바름		66 (7.6)	44 (10.2)	22 (5.1)	29 (6.1)	37 (9.5)
③ 부모를 공경함		26 (3.0)	15 (3.5)	11 (2.5)	10 (2.1)	16 (4.1)
④ 부모를 이해 해줌		16 (1.8)	9 (2.1)	7 (1.6)	9 (1.9)	7 (1.8)
2. 부모를 아껴줌		188 (21.7)	100 (23.1)	88 (20.3)	116 (24.3)	72 (18.6)
① 안마해줌		128 (14.8)	70 (16.2)	58 (13.4)	85 (17.8)	43 (11.1)
② 부모를 생각해줌		37 (4.3)	21 (4.8)	16 (3.7)	19 (4.0)	18 (4.6)
③ 기념일을 챙겨줌		12 (1.4)	5 (1.2)	7 (1.6)	4 (.8)	8 (2.1)
④ 위로가 됨		11 (1.3)	4 (.9)	7 (1.6)	8 (1.7)	3 (.8)
3. 부모를 도와줌		139 (16.1)	31 (7.2)	108 (24.9)	88 (18.4)	51 (13.1)
① 집안일 도와줌		89 (10.3)	19 (4.4)	70 (16.2)	56 (11.7)	33 (8.5)
② 심부름		20 (2.3)	8 (1.8)	12 (2.8)	13 (2.7)	7 (1.8)
③ 청소함		19 (2.2)	4 (.9)	15 (3.5)	8 (1.7)	11 (2.8)
④ 설거지 함		11 (1.3)	-	11 (2.5)	11 (2.3)	-
4. 애교 부림		114 (13.2)	59 (13.6)	55 (12.7)	65 (13.6)	49 (12.6)
① 애교 부림		68 (7.9)	28 (6.5)	40 (9.2)	41 (8.6)	27 (7.0)
② 대화, 편지		26 (3.0)	15 (3.5)	11 (2.5)	12 (2.5)	14 (3.6)
③ 친근한 태도		20 (2.3)	16 (3.7)	4 (.9)	12 (2.5)	8 (2.1)
5. 학업 충실		86 (9.9)	47 (10.9)	39 (9.0)	41 (8.6)	45 (11.6)
① 공부를 열심히 함		76 (8.8)	43 (9.9)	33 (7.6)	36 (7.5)	40 (10.3)
② 학업 충실		10 (1.2)	4 (.9)	6 (1.4)	5 (1.0)	5 (1.3)
6. 성실함		58 (6.7)	30 (6.9)	28 (6.5)	25 (5.2)	33 (8.5)
① 성실함		28 (3.2)	17 (3.9)	11 (2.5)	13 (2.7)	15 (3.9)
② 스스로 잘함		19 (2.2)	7 (1.6)	12 (2.8)	11 (2.3)	8 (2.1)
③ 노력함		11 (1.3)	6 (1.4)	5 (1.2)	1 (.2)	10 (2.6)
7. 효도행동 안함		36 (4.2)	20 (4.6)	16 (3.7)	25 (5.2)	11 (2.8)
① 효도행동 안함		23 (2.7)	14 (3.2)	9 (2.1)	15 (3.1)	8 (2.1)
② 없음		8 (.9)	4 (.9)	4 (.9)	5 (1.0)	3 (.8)
③ 표현 안함		5 (.6)	2 (.5)	3 (.7)	5 (1.0)	-
8. 잘 성장함		33 (3.8)	15 (3.5)	18 (4.2)	17 (3.6)	16 (4.1)
① 올바른 행동		15 (1.7)	7 (1.6)	8 (1.8)	7 (1.5)	8 (2.1)
② 착함		9 (1.0)	5 (1.2)	4 (.9)	4 (.8)	5 (1.3)
③ 건강하게 잘 자람		9 (1.0)	3 (.7)	6 (1.4)	6 (1.3)	3 (.8)
9. 기타		5 (.6)	4 (.9)	1 (.2)	1 (.2)	4 (1.0)
계		866(100.0)	433(100.0)	433(100.0)	478(100.0)	388(100.0)

표 4.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관련 언어표현

범주	부모	전체(%)	부모별		학력별	
			부(%)	모(%)	고졸이하(%)	대졸이상(%)
1. 다정한 표현		223 (25.8)	100 (23.1)	123 (28.4)	130 (27.2)	93 (24.0)
① 사랑해요		126 (14.5)	54 (12.5)	72 (16.6)	70 (14.6)	56 (14.4)
② 애교스러운 말		31 (3.6)	15 (3.5)	16 (3.7)	21 (4.4)	10 (2.6)
③ 대화, 편지		28 (3.2)	14 (3.2)	14 (3.2)	17 (3.6)	11 (2.8)
④ 다정한 말		26 (3.0)	14 (3.2)	12 (2.8)	14 (2.9)	12 (3.1)
⑤ 기본 좋은 말		12 (1.4)	3 (.7)	9 (2.1)	8 (1.7)	4 (1.0)
2. 예의바른 표현		170 (19.6)	96 (22.2)	74 (17.1)	84 (17.6)	86 (22.2)
① 존댓말, 고운 말, 바른 말		135 (15.6)	72 (16.6)	63 (14.5)	65 (13.6)	70 (18.0)
② 예의바른 말		35 (4.0)	24 (5.5)	11 (2.5)	19 (4.0)	16 (4.1)
3. 격려의 표현		85 (9.8)	43 (9.9)	42 (9.7)	53 (11.1)	32 (8.2)
① 힘드시죠		42 (4.8)	22 (5.1)	20 (4.6)	26 (5.4)	16 (4.1)
② 힘내세요		20 (2.3)	11 (2.5)	9 (2.1)	15 (3.1)	5 (1.3)
③ 위로하는 말		14 (1.6)	4 (.9)	10 (2.3)	7 (1.5)	7 (1.8)
④ 안마해드릴게요		9 (1.0)	6 (1.4)	3 (.7)	5 (1.0)	4 (1.0)
4. 말로 표현하지 않음		81 (9.4)	46 (10.6)	35 (8.1)	50 (10.5)	31 (8.0)
① 말 안함		72 (8.3)	42 (9.7)	30 (6.9)	41 (8.6)	31 (8.0)
② 표현 안함		9 (1.0)	4 (.9)	5 (1.2)	9 (1.9)	-
5. 순종하는 표현		71 (8.2)	37 (8.5)	34 (7.9)	37 (7.7)	34 (8.8)
① 공손한 말		37 (7.7)	12 (2.8)	18 (4.2)	18 (3.8)	12 (3.1)
② 순종하는 말		22 (2.5)	14 (3.2)	8 (1.8)	9 (1.9)	13 (3.4)
③ 부모를 이해하는 말		19 (2.2)	11 (2.5)	8 (1.8)	10 (2.1)	9 (2.3)
6. 기대해 달라는 표현		56 (6.5)	29 (6.7)	27 (6.2)	28 (5.9)	28 (7.2)
① 앞으로 잘 할게요		37 (4.3)	21 (4.8)	16 (3.7)	20 (4.2)	17 (4.4)
② 커서 효도할게요		19 (2.2)	8 (1.8)	11 (2.5)	8 (1.7)	11 (2.8)
7.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표현		51 (5.9)	21 (4.8)	30 (6.9)	30 (6.3)	21 (5.4)
① 공부 열심히 할게요		37 (4.3)	18 (4.2)	19 (4.4)	24 (5.0)	13 (3.4)
② 열심히 할게요		14 (1.6)	3 (.7)	11 (2.5)	6 (1.3)	8 (2.1)
8. 건강하라는 표현		43 (5.0)	22 (5.1)	21 (4.8)	24 (5.0)	19 (4.9)
① 건강하세요		20 (2.3)	8 (1.8)	12 (2.8)	13 (2.7)	7 (1.8)
② 아픈데 없어요?		17 (2.0)	8 (1.8)	9 (2.1)	11 (2.3)	6 (1.5)
③ 금주, 금연 하세요		6 (.7)	6 (1.4)	-	-	6 (1.5)
9. 감사의 표현		37 (4.3)	17 (3.9)	20 (4.6)	13 (2.7)	24 (6.2)
① 감사합니다		21 (2.4)	11 (2.5)	10 (2.3)	5 (1.0)	16 (4.1)
② 고맙습니다		16 (1.8)	6 (1.4)	10 (2.3)	8 (1.7)	8 (2.1)
10. 도와드리겠다는 표현		30 (3.5)	10 (2.3)	20 (4.6)	19 (4.0)	11 (2.8)
① 도와드릴게요		21 (2.4)	9 (2.1)	12 (2.8)	15 (3.1)	6 (1.5)
② 제가 할게요		9 (1.0)	1 (.2)	8 (1.8)	4 (.8)	5 (1.3)
11. 기타		19 (2.2)	12 (2.8)	7 (1.6)	10 (2.1)	9 (2.3)
계		866 (100.0)	433 (100.0)	433 (100.0)	478 (100.0)	388 (100.0)

표 5. 가장 감동적인 자녀의 효도

범주	부모	전체(%)	부모별		학력별	
			부(%)	모(%)	고졸 이하(%)	대졸 이상(%)
1. 학업충실		165 (19.1)	80 (18.5)	85 (19.6)	91 (19.0)	74 (19.1)
① 공부를 열심히 함		96 (11.1)	46 (10.6)	50 (11.5)	55 (11.5)	41 (10.6)
② 공부를 잘함		55 (6.4)	29 (6.7)	26 (6.0)	27 (5.6)	28 (7.2)
③ 학업충실		14 (1.6)	5 (1.2)	9 (2.1)	9 (1.9)	5 (1.3)
2. 순종		162 (18.7)	89 (20.6)	73 (16.9)	77 (16.1)	85 (21.9)
① 부모마음 헤아림		75 (8.7)	43 (9.9)	32 (7.4)	33 (6.9)	42 (10.8)
② 부모에게 순종함		59 (6.8)	29 (6.7)	30 (6.9)	35 (7.3)	24 (6.2)
③ 부모에게 감사함		14 (1.6)	9 (2.1)	5 (1.2)	6 (1.3)	8 (2.1)
④ 부모존경		7 (.8)	4 (.9)	3 (.7)	2 (.4)	5 (1.3)
⑤ 예의바름		7 (.8)	4 (.9)	3 (.7)	1 (.2)	6 (1.5)
3. 성실함		158 (18.2)	81 (18.7)	77 (17.8)	88 (18.4)	70 (18.0)
① 스스로 알아서 잘 함		71 (8.2)	38 (8.8)	33 (7.6)	38 (7.9)	33 (8.5)
② 노력함		61 (7.0)	28 (6.5)	33 (7.6)	37 (7.7)	24 (6.2)
③ 성실한 태도		26 (3.0)	15 (3.5)	11 (2.5)	13 (2.7)	13 (3.4)
4. 부모를 아껴줌		128 (14.8)	58 (13.4)	70 (16.2)	75 (15.7)	53 (13.7)
① 부모를 챙겨줌		29 (3.3)	12 (2.8)	17 (3.9)	16 (3.3)	13 (3.4)
② 부모를 도와줌		29 (3.3)	10 (2.3)	19 (4.4)	21 (4.4)	8 (2.1)
③ 기념일 챙겨줌		26 (3.0)	12 (2.8)	14 (3.2)	15 (3.1)	11 (2.8)
④ 가족에 대한 배려		23 (2.7)	11 (2.5)	12 (2.8)	10 (2.1)	13 (3.4)
⑤ 안마해줌		11 (1.3)	7 (1.6)	4 (.9)	8 (1.7)	3 (.8)
⑥ 형제간 우애 있음		10 (1.2)	6 (1.4)	4 (.9)	5 (1.0)	5 (1.3)
5. 정다운 행동		87 (10.0)	44 (10.2)	43 (9.9)	57 (11.9)	30 (7.7)
① 감동시키는 행동		43 (5.0)	25 (5.8)	18 (4.2)	29 (6.1)	14 (3.6)
② 애교, 친근한 행동		28 (3.2)	14 (3.2)	14 (3.2)	19 (4.0)	9 (2.3)
③ 기분 좋게 해줌		16 (1.8)	5 (1.2)	11 (2.5)	9 (1.9)	7 (1.8)
6. 다정한 말		84 (9.7)	38 (8.8)	46 (10.6)	51 (10.7)	33 (8.5)
① 위로의 말		28 (3.2)	7 (1.6)	21 (4.8)	17 (3.6)	11 (2.8)
② 대화, 편지, 문자		23 (2.7)	13 (3.0)	10 (2.3)	14 (2.9)	9 (2.3)
③ 사랑한다는 말		22 (2.5)	12 (2.8)	10 (2.3)	12 (2.5)	10 (2.6)
④ 다정한 말		11 (1.3)	6 (1.4)	5 (1.2)	8 (1.7)	3 (.8)
7. 잘 성장함		75 (8.7)	38 (8.8)	37 (8.5)	36 (7.5)	39 (10.1)
① 건강하게 잘 자람		38 (4.4)	19 (4.4)	19 (4.4)	23 (4.8)	15 (3.9)
② 어른스러움		14 (1.6)	7 (1.6)	7 (1.6)	6 (1.3)	8 (2.1)
③ 자랑스러움		13 (1.5)	6 (1.4)	7 (1.6)	4 (.8)	9 (2.3)
④ 착함		10 (1.2)	6 (1.4)	4 (.9)	3 (.6)	7 (1.8)
8. 기타		7 (.8)	5 (1.2)	2 (.5)	3 (.6)	4 (1.0)
계		866 (100.0)	433 (100.0)	433 (100.0)	478 (100.0)	388 (100.0)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장 감동적인 자녀의 효도에 대해 대졸 이상 집단은 순종 범주에, 고졸 이하 집단은 학업충실 범주를 더욱 비중있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가 학업에 충실할 때 자녀가 효도하는 것으로 가장 감동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실함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스스로 알아서 잘함이라든가 노력함 및 성실한 태도라는 항목들에서 비록 응답자들이 직접 학업이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공부를 알아서 하고 학업에 노력하는 것을 응답자들이 간접적으로 함축하는 내용들도 상당 부분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본다면,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학업 충실과 학업에서의 성과로 인해 만족하고, 그것을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감동적인 효도로 받아들이는 부모들의 비율은 표 5에 제시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비중일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학업에 충실하거나 성실하게 생활할 때, 또는 건강하고 착하게 잘 자라 줄 때, 그 자체를 바라보며 효도를 받는 것으로 감동하는 부모들이 5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2명 중의 1명은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며 성실하게 잘 성장할 때 그 자체를 자녀가 매우 감동적인 효도를 한 것으로 받아들임을 알 수 있다.

표 5를 보면 범주 5에 정다운 행동과 범주 6에 다정한 말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범주를 합하면 약 20%에 가깝는데, 행동이든 말이든 다정한 표현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표현방식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정겹게 느껴지는 자녀의 행동이나 말이, 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효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녀가 효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부모가 지각했을 때 자녀가 효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인 범주는 인간의 도리로서 50%에 가깝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혈연관계 범주 및 올바른 인간형성 범주가 모두 10%-15% 사이의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가정화목 범주 및 자녀에게 도움이 됨 범주가 10%에 가까운 비율이었으며 이외에 부모의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는 범주가 포함되었다.

부모별 분석 결과를 보면, 아버지 집단과 어머니 집단 모두 인간의 도리 범주에 대해 압도적으로 높은 반응율을 보이는 점에서 일치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혈연관계가 부각된 점도 동일하였다.

학력별 분석 결과도 고졸 이하 집단과 대졸 이상 집단 모두 인간의 도리 범주에 대해 현저하게 높은 반응율을 보인 점에서 일치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로 높은 반응율을 보이는 범주에 있어 고졸 이하 집단은 혈연관계 범주를, 대졸 이상 집단은 올바른 인간형성 범주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반응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한국 부모 2명 중 1명은 자녀가 효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표 6. 자녀가 효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범주	부모	전체(%)	부모별		학력별	
			부(%)	모(%)	고졸 이하(%)	대졸 이상(%)
1. 인간의 도리		397 (45.8)	205 (47.3)	192 (44.3)	225 (47.1)	172 (44.3)
① 인간의 도리		177 (20.4)	95 (21.9)	82 (18.9)	97 (20.3)	80 (20.6)
② 기본도리		75 (8.7)	36 (8.3)	39 (9.0)	44 (9.2)	31 (8.0)
③ 당연히 해야 함		65 (7.5)	27 (6.2)	38 (8.8)	39 (8.2)	26 (6.7)
④ 기본예절		27 (3.1)	13 (3.0)	14 (3.2)	16 (3.3)	11 (2.8)
⑤ 전통가치		22 (2.5)	14 (3.2)	8 (1.8)	10 (2.1)	12 (3.1)
⑥ 중요한 가치		17 (2.0)	9 (2.1)	8 (1.8)	10 (2.1)	7 (1.8)
⑦ 사회의 기본		14 (1.6)	11 (2.5)	3 (.7)	9 (1.9)	5 (1.3)
2. 혈연관계		128 (14.8)	62 (14.3)	66 (15.2)	87 (18.2)	41 (10.6)
① 부모자녀관계이므로		81 (9.4)	37 (8.5)	44 (10.2)	57 (11.9)	24 (6.2)
② 자녀이기 때문		35 (4.0)	17 (3.9)	18 (4.2)	25 (5.2)	10 (2.6)
③ 가족이므로		12 (1.4)	8 (1.8)	4 (.9)	5 (1.0)	7 (1.8)
3. 올바른 인간형성		109 (12.6)	57 (13.2)	52 (12.0)	55 (11.5)	54 (13.9)
① 인성교육		45 (5.2)	25 (5.8)	20 (4.6)	24 (5.0)	21 (5.4)
② 올바른 인격형성		38 (4.4)	19 (4.4)	19 (4.4)	20 (4.2)	18 (4.6)
③ 윗사람에 대한 공경		26 (3.0)	13 (3.0)	13 (3.0)	11 (2.3)	15 (3.9)
4. 가정화목		77 (8.9)	29 (6.7)	48 (11.1)	37 (7.7)	40 (10.3)
① 가정화목을 위해		67 (7.7)	24 (5.5)	43 (9.9)	31 (6.5)	36 (9.3)
② 가족사랑		10 (1.2)	5 (1.2)	5 (1.2)	6 (1.3)	4 (1.0)
5. 자녀에게 도움이 됨		74 (8.5)	37 (8.5)	37 (8.5)	36 (7.5)	38 (9.8)
① 자녀교육		28 (3.2)	15 (3.5)	13 (3.0)	16 (3.3)	12 (3.1)
② 앞으로 부모가 될 것이므로		19 (2.2)	8 (1.8)	11 (2.5)	7 (1.5)	12 (3.1)
③ 자녀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됨		18 (2.1)	9 (2.1)	9 (2.1)	10 (2.1)	8 (2.1)
④ 건전한 사회 조성		9 (1.0)	5 (1.2)	4 (.9)	3 (.6)	6 (1.5)
6. 부모의 희생에 대한 보답		50 (5.8)	22 (5.1)	28 (6.5)	22 (4.6)	28 (7.2)
① 부모의 희생에 보답		21 (2.4)	8 (1.8)	13 (3.0)	9 (1.9)	12 (3.1)
② 부모에 대한 공경의 표시		16 (1.8)	9 (2.1)	7 (1.6)	7 (1.5)	9 (2.3)
③ 사랑의 표현		7 (.8)	2 (.5)	5 (1.2)	4 (.8)	3 (.8)
④ 부모에 대한 감사		6 (.7)	3 (.7)	3 (.7)	2 (.4)	4 (1.0)
7. 기타		31 (3.6)	21 (4.8)	10 (2.3)	16 (3.3)	15 (3.9)
① 기타		17 (2.0)	10 (2.3)	7 (1.6)	8 (1.7)	9 (2.3)
② 중요하지 않음		7 (.8)	5 (1.2)	2 (.5)	5 (1.0)	2 (.5)
③ 모르겠음		7 (.8)	6 (1.4)	1 (.2)	3 (.6)	4 (1.0)
계		866 (100.0)	433 (100.0)	433 (100.0)	478 (100.0)	388 (100.0)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같이 생각하는 경향은 부모별로나 학력별로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인간으로서 기본 도리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전통가치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자녀가 효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로 혈연관계가 두 번째로 부각되고 있다. 즉 부모자녀관계이기 때문에, 또는 자녀이기 때문에, 또는 가족이므로와 같은 항목들은 모두 부모와 자녀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가 효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의 네 번째 범주로 가정화목이 포함되어 있다. 자녀가 효도함으로써 가정이 화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가정의 화목을 중요한 가치로 전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불효와

효도하지 않았을 때의 마음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불효를 분석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순종하지 않음 범주가 40% 가까운 비율을 나타내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부각되었다. 그 다음으로 나쁜 행동 범주 및 기대에 미치지 못함 범주가 10%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마음을 아프게 함, 부모를 무시함, 학업 소홀 및 불성실함 범주가 5-10%의 반응율을 보였으며, 이외에 불효한 적 없음이라는 범주도 나타났다.

부모별 분석결과를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 모두 40% 전후의 응답자들이 순종하지 않은 범주에 해당하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두 집단 모두 나쁜 행동 범주를 두 번째로 많이 지적하였다. 한편 학력별로 분석하였을 때에도 고졸 이하 집단이나 대졸 이상 집단 모두 순종하지 않음 범주를 현저하게 많이 지적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 모두 나쁜 행동 범주에 대한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그러므로 부모별로나 학력별 하위집단에서 대표적인 반응 패턴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자녀가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 10명 중 4명 정도의 부모들은 자녀가 불효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쁜 행동을 하거나,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부모를 무시하거나, 학업에 소홀하거나, 불성실할 때, 고등학생 자녀가 보이는 이러한 태도나 행동을 부모들은 불효로 지각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자녀의 불효에 대한 지각은 아버지나 어머니, 학력 고하를 막론하고 비슷한 반응 형태를 보인다.

표 8은 자녀가 효도하지 않았을 때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집단 전체의 반응 경향을 보면, 응답자의 1/2이 서운함 범주를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로 대표적인 반응은 괘씸함 범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자기반성, 자녀에 대한 이해, 실망함 범주가 5-10%로 나타났다. 이외에 담담함, 자녀의 효도에 만족함 범주가 각각 포함되었다.

부모별 하위집단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 모두 자녀가 효도하지 않았을 때 서운함

표 7.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불효

범주	부모	전체(%)	부모별		학력별	
			부(%)	모(%)	고졸 이하(%)	대졸 이상(%)
1. 순종하지 않음		343 (39.6)	174 (40.2)	169 (39.0)	203 (42.5)	140 (36.1)
① 말 안 들음		143 (16.5)	74 (17.1)	69 (15.9)	87 (18.2)	56 (14.4)
② 반항		53 (6.1)	26 (6.0)	27 (6.2)	25 (5.2)	28 (7.2)
③ 대들음		39 (4.5)	18 (4.2)	21 (4.8)	25 (5.2)	14 (3.6)
④ 말대꾸		37 (4.3)	18 (4.2)	19 (4.4)	19 (4.0)	18 (4.6)
⑤ 제멋대로 함		30 (3.5)	18 (4.2)	12 (2.8)	18 (3.8)	12 (3.1)
⑥ 짜증냄		26 (3.0)	11 (2.5)	15 (3.5)	19 (4.0)	7 (1.8)
⑦ 고집 부림		15 (1.7)	9 (2.1)	6 (1.4)	10 (2.1)	5 (1.3)
2. 나쁜 행동		109 (12.6)	52 (12.0)	57 (13.2)	64 (13.4)	45 (11.6)
① 일탈행동		32 (3.7)	10 (2.3)	22 (5.1)	19 (4.0)	13 (3.4)
② 거짓말		32 (3.7)	18 (4.2)	14 (3.2)	24 (5.0)	8 (2.1)
③ 바르지 못한 행동		28 (3.2)	16 (3.7)	12 (2.8)	10 (2.1)	18 (4.6)
④ 나쁜 짓		17 (2.0)	8 (1.8)	9 (2.1)	11 (2.3)	6 (1.5)
3. 기대에 미치지 못함		97 (11.2)	40 (9.2)	47 (10.9)	53 (11.1)	34 (8.8)
① 건강하지 못함		42 (4.8)	19 (4.4)	23 (5.3)	27 (5.6)	15 (3.9)
② 이기적임		22 (2.5)	10 (2.3)	12 (2.8)	15 (3.1)	7 (1.8)
③ 기대에 어긋남		12 (1.4)	5 (1.2)	7 (1.6)	6 (1.3)	6 (1.5)
④ 형제간 다툼		11 (1.3)	6 (1.4)	5 (1.2)	5 (1.0)	6 (1.5)
⑤ 실망시킴		10 (1.2)	5 (1.2)	5 (1.2)	5 (1.0)	5 (1.3)
4. 마음을 아프게 함		81 (9.4)	41 (9.5)	40 (9.2)	43 (9.0)	38 (9.8)
① 속상하게 함		41 (4.7)	19 (4.4)	22 (5.1)	21 (4.4)	20 (5.2)
② 마음을 아프게 함		31 (3.6)	16 (3.7)	15 (3.5)	15 (3.1)	16 (4.1)
③ 걱정 끼침		9 (1.0)	6 (1.4)	3 (0.7)	7 (1.5)	2 (0.5)
5. 부모를 무시함		76 (8.8)	37 (8.5)	39 (9.0)	34 (7.1)	42 (10.8)
① 부모 무시		27 (3.1)	15 (3.5)	12 (2.8)	16 (3.3)	11 (2.8)
② 무관심, 대화단절		26 (3.0)	9 (2.1)	17 (3.9)	11 (2.3)	15 (3.9)
③ 예의 없음		23 (2.7)	13 (3.0)	10 (2.3)	7 (1.5)	16 (4.1)
6. 학업소홀		62 (7.2)	23 (5.3)	39 (9.0)	36 (7.5)	26 (6.7)
① 공부를 안 하고 놀음		38 (4.4)	15 (3.5)	23 (5.3)	22 (4.6)	16 (4.1)
② 성적이 떨어짐		13 (1.5)	5 (1.2)	8 (1.8)	6 (1.3)	7 (1.8)
③ 학업에 최선을 다하지 않음		11 (1.3)	3 (0.7)	8 (1.8)	8 (1.7)	3 (0.8)
7. 불성실함		51 (5.9)	32 (7.4)	19 (4.4)	20 (4.2)	31 (8.0)
① 노력하지 않음		17 (2.0)	10 (2.3)	7 (1.6)	8 (1.7)	9 (2.3)
② 게으름		14 (1.6)	9 (2.1)	5 (1.2)	5 (1.0)	9 (2.3)
③ 약속을 지키지 않음		10 (1.2)	8 (1.8)	2 (0.5)	4 (0.8)	6 (1.5)
④ 성실하지 못함		10 (1.2)	5 (1.2)	5 (1.2)	3 (0.6)	7 (1.8)
8. 불효한 적 없음		31 (3.6)	18 (4.2)	13 (3.0)	15 (3.1)	16 (4.1)
① 불효라고 생각한 적 없음		18 (2.1)	9 (2.1)	9 (2.1)	9 (1.9)	9 (2.3)
② 잘함		13 (1.5)	9 (2.1)	4 (0.9)	6 (1.3)	7 (1.8)
9. 기타		16 (1.8)	11 (2.5)	5 (1.2)	5 (1.0)	11 (2.8)
계		866 (100.0)	433 (100.0)	433 (100.0)	478 (100.0)	388 (100.0)

표 8. 자녀가 효도하지 않았을 때의 마음

범주	부모	전체(%)	부모별		학력별	
			부(%)	모(%)	고졸 이하(%)	대졸 이상(%)
1. 서운함		473 (54.6)	239 (55.2)	234 (54.0)	269 (56.3)	204 (52.6)
① 서운함		132 (15.2)	71 (16.4)	61 (14.1)	71 (14.9)	61 (15.7)
② 속상함		113 (13.0)	53 (12.2)	60 (13.9)	69 (14.4)	44 (11.3)
③ 섭섭함		89 (10.3)	42 (9.7)	47 (10.9)	49 (10.3)	40 (10.3)
④ 슬픔		57 (6.6)	26 (6.0)	31 (7.2)	37 (7.7)	20 (5.2)
⑤ 마음이 아픔		38 (4.4)	18 (4.2)	20 (4.6)	19 (4.0)	19 (4.9)
⑥ 씁쓸함		24 (2.8)	15 (3.5)	9 (2.1)	12 (2.5)	12 (3.1)
⑦ 허전함		20 (2.3)	14 (3.2)	6 (1.4)	12 (2.5)	8 (2.1)
2. 패섬함		140 (16.2)	62 (14.3)	78 (18.0)	77 (16.1)	63 (16.2)
① 배신감		39 (4.5)	15 (3.5)	24 (5.5)	24 (5.0)	15 (3.9)
② 화가 남		35 (4.0)	16 (3.7)	19 (4.4)	20 (4.2)	15 (3.9)
③ 자녀에 대한 미움		27 (3.1)	12 (2.8)	15 (3.5)	13 (2.7)	14 (3.6)
④ 패섬함		25 (2.9)	12 (2.8)	13 (3.0)	12 (2.5)	13 (3.4)
⑤ 자녀에 대한 비난		14 (1.6)	7 (1.6)	7 (1.6)	8 (1.7)	6 (1.5)
3. 자기반성		86 (9.9)	44 (10.2)	42 (9.7)	48 (10.0)	38 (9.8)
① 자녀에 대한 걱정		31 (3.6)	13 (3.0)	18 (4.2)	17 (3.6)	14 (3.6)
② 자기반성		23 (2.7)	16 (3.7)	7 (1.6)	10 (2.1)	13 (3.4)
③ 잘못된 가정교육		18 (2.1)	7 (1.6)	11 (2.5)	14 (2.9)	4 (1.0)
④ 교육이 필요함		14 (1.6)	8 (1.8)	6 (1.4)	7 (1.5)	7 (1.8)
4. 자녀에 대한 이해		56 (6.5)	31 (7.2)	25 (5.8)	23 (4.8)	33 (8.5)
① 철이 없음		24 (2.8)	16 (3.7)	8 (1.8)	7 (1.5)	17 (4.4)
② 앞으로 잘 할 것이란 기대		16 (1.8)	11 (2.5)	5 (1.2)	6 (1.3)	10 (2.6)
③ 이해하려고 노력함		16 (1.8)	4 (1.0)	12 (2.8)	10 (2.1)	6 (1.5)
5. 실망함		50 (5.8)	26 (6.0)	24 (5.5)	28 (5.9)	22 (5.7)
① 실망스러움		24 (2.8)	15 (3.5)	9 (2.1)	13 (2.7)	11 (2.8)
② 답답함		17 (2.0)	8 (1.8)	9 (2.1)	10 (2.1)	7 (1.8)
③ 낳은 것을 후회함		9 (1.0)	3 (1.0)	6 (1.4)	5 (1.0)	4 (1.0)
6. 답답함		29 (3.3)	17 (3.9)	12 (2.8)	12 (2.5)	17 (4.4)
① 생각해보지 않음		13 (1.5)	10 (2.3)	3 (1.0)	7 (1.5)	6 (1.5)
② 잘 모르겠음		8 (1.0)	5 (1.2)	3 (1.0)	3 (1.0)	5 (1.3)
③ 답답함		8 (1.0)	2 (1.0)	6 (1.4)	2 (1.0)	6 (1.5)
7. 자녀의 효도에 만족함		27 (3.1)	10 (2.3)	17 (3.9)	16 (3.3)	11 (2.8)
8. 기타		5 (1.0)	4 (1.0)	1 (1.0)	5 (1.0)	-
계		866 (100.0)	433 (100.0)	433 (100.0)	478 (100.0)	388 (100.0)

범주에 55% 내외의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 모두 패섬함 범주가 10-20% 사이의 반응율을 보이면서 두 번째로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학력별 분석에서도 부모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하위집단별 대표적 범주에 대한 반응 패턴이 일치하였다. 즉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 집단 모두 서운함 범주에 대해 1/2 이상의 응답자들이 반응하고, 두 번째로는 패섬함 범주에 대해 동일하게 16% 이상의 응답자들이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부모별로나 학력별로 자녀가 효도하지 않았을 때의 마음에 큰 차이가 없고 거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가 효도하지 않았을 때, 2명 중에서 1명의 한국 부모가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정서는 서운함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상당히 부정적인 분노의 감정을 담은 패섬함이나, 자녀에 대한 실망스러움을 많이 느꼈다. 그러나 이렇게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반성을 하는 경우가 10명 중 1명 정도를 차지했다. 즉 본인이 부모로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 반성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자녀가 현재 철이 없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잘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자녀를 이해하는 경우도 부분적으로 있었다. 매우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녀가 효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담담한 부모들도 있었다.

4. 자녀 효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녀 효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자녀가 효도하는 정도, 부모의 자녀양육효능감, 가정의 경제수준 및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가정생활만족도는 자녀양육효능감과 $r=.63$ 의 특별히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가정생활만족도는 자녀가 효도하는 정도와도 $r=.49$ 의 높은 정적 관계에 있었고, 가정경제수준과도 자녀양육효능감이나 가정생활만족도만큼 높지는 않지만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자녀양육효능감은 자녀가 효도하는 정도와 $r=.43$ 의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림 2는 자녀 효도가 부모들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한 결과이다. 경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GFI=.985$ 로서 양호하였다. 모형의 경로계수를 보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는 자녀의 효도에 의해 직접적으로 의미있는 경로의 영향을 받았다. 동시에 자녀의 효도는 부모의 자녀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간접적인 영향도 있었다. 한편 가정경제수준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정적인 경로계수를 보였다. 그림 2의 경로모형에서 가장 큰 경로계수는 자녀양육효능감에서 가정생활만족도로 연결되는 경로에서 발견되었다. 이 경로에서 $P=.48$ 의 경로계수 값에 비해 가정경제수준이 가정생활만족도로 연결되는 경로계수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10은 그림 2의 경로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변인들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2의 경로모형에 있는 각각의 변인들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의 전체효과를 비교해 보면, 자녀양육효능감이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해 미치는 전체효과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자녀의 효도 정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자녀양육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를 합해서 전체효과가 .46로 매우 높았지만, 자녀양육효능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전체효과 값보다는 약간 낮았다. 가정경제수준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전체효과는 정적인 값을 보였지만, 자녀양육효능감이나 자녀의 효도 정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전체효과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효과크기가 낮았다. 한편 자녀의 효도 정도가 자녀양육효능감에 대한 전체효과도 .43으로 매우 높았다.

표 9, 그림 2와 표 10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고등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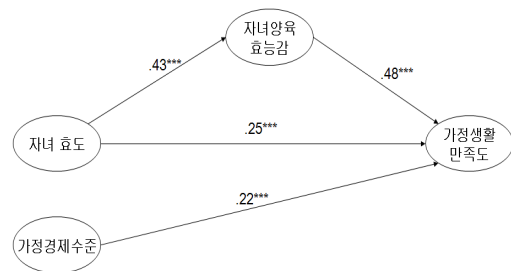


그림 2. 검증모형: 자녀 효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정생활만족도는 자녀들의 효도 정도에 의해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효능감은 자녀의 효도 정도와 가정생활만족도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녀양육효능감은 부모들의 가정생활만족도에 큰 직접효과를 갖고 결정적인 영

표 9. 자녀 효도, 자녀양육효능감, 가정경제수준과 가정생활만족도의 관계

	자녀 효도	자녀양육 효능감	가정경제 수준	가정생활 만족도
자녀 효도	1.00			
자녀양육효능감	.43***	1.00		
가정경제수준	.14***	.22***	1.00	
가정생활만족도	.49***	.63***	.36***	1.00

*** $p < .001$

표 10. 효과분석: 자녀 효도, 자녀양육효능감, 가정경제수준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자녀 효도 → 자녀양육효능감	.43***	—	.43***
→ 가정생활만족도	.25***	.21***	.46***
자녀양육효능감 → 가정생활만족도	.48***	—	.48***
가정경제수준 → 가정생활만족도	.22***	—	.22***

*** $p < .001$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가정의 경제 수준도 가정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양육효능감이나 자녀의 효도 정도에 비해 영향력의 정도가 매우 낮았다.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때,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불안정한 경우보다 부모들의 가정생활만족도가 증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가정경제수준보다는 자녀의 효도 정도나 자녀양육효능감이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2배 이상으로 강력하였다. 특별히 자녀양육효능감은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변인인 동시에, 자녀의 효도 정도가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매개변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이상에서의 분석 결과는 자녀가 잘 성장하는 자체가 효도인 사실을 통해 본 한국인의 관계적 자기, 가장 감동적인 효도인 자녀의 학업성취를 통한 대리적 성취, 효도의 전제조건으로서 순종의 중요성, 부모들이 중요시 여기는 양육신념으로서 성실함, 효도의 문화적 토대로서 혈연관계에 기초한 인간의 기본 도리에 대한 인식, 효도의 표현방식으로서 기본적인 예절의 중요성, 효도의 전달 수단으로 다정하고 배려적인 의사소통 등 한국인 부모 자녀관계의 토착심리를 밝혀 주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자녀 효도에 대한 지각을 통해 한국인의 관계적 자기와 관련된 모습들이 드러났다. ‘효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효도의 대상으로서 부모를 인식하게 된다. 즉 효도는 부모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효도를 부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자신이 잘 되는 것을 부모들이 효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컨대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 행동으로 자녀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착하게 또한 건강하게 잘 성장함이 포함되었다(표 3 참고). 또한 가장 감동적인 자녀의 효도로도 건강하게 잘 자람이나 자랑스러움이나 착함과 같이 자녀 자신이 잘 성장하는 것이 지적되었다(표 8 참고). 즉 부모에게 어떠한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면, 그것을 한국 부모들은 효도로 인식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자녀가 잘되는 것을 효도로 생각하는 경향은, 성인들이 어린 자녀들의 효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노부모에 대해 효도할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최경숙(1998)이 시부모와 친정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요인분석했을 때에도 자신이 잘 되는 것을 효라고 생각하는 요인이 있었으며, 효 행동에서도 부모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고 마음을 편히 해 드리는 것이 요인으로 포함된 바 있다.

이러한 심리적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전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부모와 자녀가 각각의 존재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신체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상당부분 공유된 존재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심리적 기제를 Kim(2002)은 관계적

자기로 표현하고, 유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관계적 자기가 어떠한 발달적 형태로 변화하는지를 개인적 자기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주체로서의 자기 인식과 타인과의 관계 내에서의 자기 인식은 매우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지며, 개인주의 문화와 관계주의 문화에서 자기개념은 기본적으로 가정이 다르다(박영신, 김의철, 2004a).

관계문화 속에서 한국 부모들은 자녀와 공유된 자기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직접 부모에게 어떠한 행위나 태도를 나타내지 않더라도, 자녀 자신이 잘 성장하고 성공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부모들로 하여금 대리적인 성취의 경험을 하게 하며 그것을 효도로 인식한다(Park, 2008).

공유된 자기개념은 강한 관계중심의 사고와 문화풍토에서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 자녀가 효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혈연관계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이 나왔다(표 6 참고).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는 무조건 효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한국 부모들은 갖고 있다. 이러한 두드러진 혈연관계 인식은 한국 부모들이 자녀를 신뢰하거나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핵심 이유로 밝혀진 바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5). 그리고 정옥분 등(2008)이 대학생들의 부모되는 것에 대한 동기를 분석하였을 때에도 혈연관계 인식의 중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둘째로, 이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들은 한국 부모들의 자녀 학업성취에 대한 높은 열망과, 이로 인한 교육열 현상의 심리적 메커니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로 인해 가장 감동하는 효도는 자녀의 학업충실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표 5 참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불효 중에, 공부를 안 하고 논다든가 성적이 떨어진다든가 학업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등, 학업에 대한 소홀이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불효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표 7 참고).

자녀가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잘해 주는 것보다도 자녀가 학업에 충실한 것이 더 감동적으로 부모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잘하며 충실하게 학업에 임할 때, 한국 부모들은 온 마음으로 감동을 한다. 반면에 학업에 소홀하여 성적이 떨어지면 한국 부모들은 그것도 불효로 여긴다. 이러한 심리로 인해 한국 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한국 사회의 교육적 성취 현상과 심리적 기반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탐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김의철, 박영신, 2008; 박영신, 김의철, 2002).

한국 부모들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자질로 근면 성실함 외에도 전문성과 지식 및 실력 그리고 공부습관을 두 번째로 많이 지적했다(윤중희, 2007)는 사실은,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 학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을 부모들이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가 지각한 아동의 성격 강점으로 학구열이 포함되었다(문용린 등, 2008)는 사실을 통해서도,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의 학업 충실을 얼마나 중요한 덕목으로 인정하고 또한 기

대하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들의 생각은 자녀들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종민과 최영희(2008)의 연구에서 가족기능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영향력 있는 변인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즉 높은 가족응집성과 가족 융통성은 아동의 성취동기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가짐으로써, 이는 가족이라는 환경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학업에 대한 충실을 강조하고, 이러한 목표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응집력 있게 추구하게 되면, 자녀들의 성취동기 증진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높아진 성취동기는 높은 학업성취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Kim & Park, 2008; Park, 2008).

셋째로, 순종은 효도와 신뢰의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 고등학생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 행동을 질문하였을 때, 순종이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표 3 참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자녀들의 불효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순종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부모들이 가장 많았는데 10명 중에서 4명의 부모들이 그렇게 공감하였다. 그리고 이와같이 순종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은 부모의 성별이나 부모의 학력과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었다.

그런데 이와같이 순종을 효도행동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부모집단들의 반응에서만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부모에게 하는 효도행동을 응답하게 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신영이, 김의철과 박영신

(2008)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생이 효도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하는 행동으로 가장 대표적인 반응도 순종이었다.

또한 최경숙(1998)이 효 행동을 요인분석하였을 때 부모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금지하는 행동으로 말대답이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윤종희, 2007)는 사실은 말대답을 불순종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들이 마음으로 거부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 금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순종은 효도의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게 하는 기초적인 요인이 된다. 한국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는 이유를 분석하였을 때 자녀의 순종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김의철, 박영신, 2004). 부모자녀관계와 같이 수직적인 인간관계에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효도의 표현이 되고, 부모는 이를 통해 자녀를 신뢰하는 기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성실함은 한국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육신념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행동으로 성실함 범주가 포함되었으며(표 3 참고), 가장 감동적인 자녀의 효도로도 성실함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표 5 참고). 또한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불효로도 불성실함이 지적되었다(표 7 참고).

한국 부모들이 자녀의 성실함을 매우 감동적인 효도로, 자녀의 불성실함을 불효로 인식하는 심리는 평소의 양육태도나 행동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부모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자질로 근

면 성실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자녀들에게 근면성과 성실함을 강조(윤종희, 2007)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함은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양육신념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효도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리이며, 이러한 가치는 혈연관계의 중요성에 토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자녀가 효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서 인간의 도리라는 반응이 가장 대표적이었지만 그 다음으로 혈연관계가 지적되었다(표 6 참고). 끊을 수 없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효도는 당연하다는 인식이다. 이와같이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할 핵심 근거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는 무조건적인 이유가 되기도 한다.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는 이유를 질문하였을 때 설령 자녀가 보호관찰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를 믿는다고 했다. 이는 자녀를 신뢰할 수 있는 강점이 구체적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부모와 자녀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이유를 질문하였을 때, 부모의 희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두 번째로 역시 혈연관계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박영신, 김의철, 2005). 즉 부모님이 어떠한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를 신뢰한다는 뜻이다.

정부용과 박영신(2006)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는 까닭을 질문하였을 때, 응답자의 약 반이 낳아주심이라는

혈연관계를 강조한 반응을 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혈연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되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옥분 등(2008)의 연구에서도 한국 대학생들이 부모가 됨으로써 성인으로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것과 관련된 전통적인 동기는 낮아졌지만, 자녀를 통해 혈연을 강화하고자 하는 혈연유대적 동기는 여전히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젊은 세대들도 여전히 혈연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윤종희(2007)의 연구에서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자녀에게 가장 권장하는 행동으로 부모공경과 가족우애의 매우 높은 반응율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 행동을 한국의 부모들은 평소에 권장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효도가 혈연관계로 맺어진 부모자녀관계에서 인간의 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기본적인 예절을 갖추는 것이 효도의 언어적이거나 행동적인 표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예의 자체가 효도의 내용은 아니지만 효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예의는 주로 존댓말과 같은 언어적 표현방식을 통해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자녀가 어떠한 말을 했을 때 부모가 그것을 자녀의 효도관련 언어 표현으로 인식하는지를 분석하였을 때, 존댓말이나 예의바른 말과 같이 예의바른 표현이 전체 응답자의 약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 참고). 이는 총 10개의 효도 언어 표현 중에 두 번째의 순서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라 하더라도 존댓말을 써서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 표현하는 것은 효도의 기본으로 부모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의바른 표현의 중요성은 고등학생들도 인식하고 있었다. 신영이, 김의철과 박영신(2008)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존댓말을 통해 예의바른 표현을 하는 것을, 효도하기 위해 부모에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라고 고등학생들이 응답하였다. 장우귀와 박영신(2006)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들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 존댓말 하기와 같은 예의바른 표현을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고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였다.

초등학생 아동의 성격 강점을 부모들이 기술하였을 때 가장 대표적인 성격으로 문용린 등(2008)은 사회성 범주를 밝혔는데, 이 사회성 범주의 내용들을 보면 예절과 인사성과 공경심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사회성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교성의 측면만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에서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잘 하며 공경하는 마음의 측면까지 포함하며, 이것이 성격적인 강점으로 한국 부모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 예의바른 표현이 효도와 관련된 언어 표현으로 밝혀진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일곱째, 다정다감하고 배려적인 의사소통이 효도의 전달 수단으로 중요해 보인다. 효도를 통한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는 다른 인간관계

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지원이 전제로 되어야 관계가 원활해지고, 이러한 정겨운 표현이 관계 결속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관련 언어 표현으로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다정한 표현(표 4 참고)이었다. 또한 가장 감동적인 자녀의 효도로 포함된 일곱 가지 중에 정다운 행동과 다정한 말이 들어가 있었다(표 5 참고). 이러한 반응들 역시 다정다감하고 배려적인 태도와 언어적 표현 및 행동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인 지원을 함축하는 다정한 말이나 정다운 행동에 감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 지원이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경험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8; 2009).

위와 같이 효도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한 결과 외에, 경로분석을 통한 양적 분석의 결과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첫째,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연구에서만 아니라 성인(박영신, 김의철, 2008)과 청소년(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둘째, 자녀의 효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의 경제적인 수준보다 2배 이상으로 훨씬 강력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경제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사실보다는, 자녀가 효도하고 이로 인해 자녀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이 가정생활만

죽도를 높이는데 훨씬 중요한 변인이라는 사실이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의 연구에서도 월평균 수입보다는 주위사람들의 정서적 지원이 행복을 설명하는 4-5배 강력한 변인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안정과 부의 축적을 위해 억눌리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자원이 필요하며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의 행복이나 만족이 물질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렵고 다른 중요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에 기초하여 볼 때, 후속연구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국 부모들의 자녀 효도에 대한 분석을 다른 표집대상들을 대상으로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연구는 효도에 대한 경험과학적 연구를 시도해 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성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다양한 표집들을 대상으로 재검증을 통해 누적적으로 결과를 확인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연구에서 표집대상을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였지만, 그러나 이번 한번만의 결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다른 표집을 대상으로 결과를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별히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중에서도 인문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녀가 전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 부모들의 입장과 상황과 태도는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 어느 정도의 누적된 경험과학적

결과들에 토대하여 보다 일반화된 결론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결과들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둘째로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초등학생 부모나 중학생 부모 및 대학생 부모들을 대상으로도 분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시사된다.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또는 부모의 연령별 세대집단에 따라, 자녀의 효도를 지각하는 데에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0대 부모에서부터 50대 부모에 이르기까지 부모집단의 세대에 따라 자녀의 효도 지각에 어떠한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로 효도에 대한 토착심리를 질적으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 형성과 관련하여 자녀의 효도 및 자녀양육효능감의 작용 등에 대한 양적 분석에 대해서도, 고등학생 부모집단만이 아니라 초·중·고·대학생 부모들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녀의 성장에 따라 가족 내에서 부모의 역할이 달라지고, 또 부모 세대 집단별로 자녀의 효도 및 자녀양육효능감과 관련된 심리적 역동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로 이 연구에서 시도된 경로모형이 연구결과의 누적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더욱 정교화되는 작업이 요구된다. 물론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박영신, 김의철, 2008)나 행복(박영신, 김의철, 2009) 분석을 위해 자녀양육효능감 등 여러 변인들을 통합하는 모형이 검증되기도 했지만, 그러한 연구모형에 자녀의 효도 변인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앞으로 자녀의 효

도 변인과 연계하여 성인 부모의 가정생활 만족이나 행복과 관련된 경로모형들이 구축되고 검증될 수 있으면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그동안 심리학 분야에서 서양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즉각적으로 번역되어 소개되고 연구되어왔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이 되는 가치나 사회문화적 풍토 속에서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이나 이러한 심리 및 행동의 변천과정에 대한 검토가 많지 않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제대로 아는가를 점검해 보고, 나아가서 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그것을 검증하고 객관적 증거를 누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가치도 변화해 왔고 효도에 대한 사회적 표상에도 당연히 변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통해 효도와 관련된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과학적으로 규명해 나가는 작업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연구는 효도와 관련된 한국인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해 나가는 첫걸음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꾸준히 효도를 연구 주제로 하여 과학적인 검증을 누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정신적 가치와 문화적 뿌리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 없이 세계화만 강조된다면 사상누각처럼 부실할 수 있다. 폐쇄적 민족주의라는 족쇄에 우리 자신을 묶으려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 세계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피지기가 필요하다. 자기 자신과 우리 것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를 토대로, 세계 속의 다양한 문화들을 수용하여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우리의 정신

적 가치와 문화적 토양을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발전적 방향으로 끊임없이 재창조해 나가고,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정신사적 방향에 한국인의 토착심리가 하나의 등대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청소년과 성인 간의 세대 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 김의철, 박영신 (2001). IMF시대 한국 학생과 성인의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77-105.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부모의 인간 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103-137.
- 김의철, 박영신 (2006).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특집호, 1-28.
- 김의철, 박영신 (2008). 한국사회와 교육적 성취 (II):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 63-109.
- 문용린, 원현주, 백수현, 안선영 (2008). 부모가 지각한 아동의 성격강점 및 덕목 분석. *인간발달연구*, 15(4), 17-35.
- 박영신, 김의철 (2002). 한국 사회의 교육적 성취: 현상과 심리적 기반. *한국교육심리학*

- 회, 교육심리연구, 16(4), 325-351.
- 박영신, 김의철 (2003). 제4장. 한국 교육학의 토착화에 대한 회고와 전망: '교육심리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 자생적 한국 교육학의 미래. 제 1부. 한국 교육학의 자생성. 122-161. 서울: 원미사.
- 박영신, 김의철 (2004a).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4b).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5).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21-55.
- 박영신, 김의철 (2008).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 자녀에 대한 신뢰 및 자기효능감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71-101.
- 박영신, 김의철 (2009).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 한국인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특집호, 95-132.
- 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IMF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05-135.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27-164.
- 신영이, 김의철, 박영신 (2008). 고등학생의 부모에 대한 효도행동과 언어표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160-161.
- 유계숙, 정현숙 (2002).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39-47.
- 윤종희 (2007). 한국인의 이상적 아동관에 나타난 양육신념체계와 양육행동 탐색을 위한 생태학적 연구. 인간발달연구, 14(1), 65-83.
- 이종민, 최영희 (2008).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 귀인 양식과 아동의 성취동기와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5(4), 37-50.
- 임정하 (2006). 한국적 부모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발달특성과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3(1), 135-151.
- 장우귀, 박영신 (2006). 한국 아동의 효도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효도를 표현하는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338-339.
- 정명진, 김광웅, 조유진 (2006). 아동의 개인적 변인, 어머니 표상 및 또래 표상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3(1), 169-183.
- 정부용, 박영신 (2006). 한국 아동의 효도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효도의 이유와 효도의 방법에 대한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336-337.

- 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김경은, 박연정 (2008).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 인식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5(4), 67-91.
- 최경숙 (1998). 시부모와 친정부모에 대한 효 의식과 효행동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5(2), 128-148.
- 현각 (2000).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서울: 열림원.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박영신, 김의철 역 (2001). 자기 효능감과 삶의 질: 교육 건강 운동 조직에서의 성취. *문화심리학 총서* 3. 서울: 교육과학사.
- Bandura, A. (2000). The parental efficacy scale. Unpublished research instrument. Departmen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USA.
- Chang, W. G., Park, Y. S. & Kim, U. (2007). Korean children and parents' conception of filial piety: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7th Biennial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p.184. July 25-28, Magellan Sutura Harbour, Kota Kinabalu City, Malaysia.
- Jung, B. Y., Kim, U. & Park, Y. S. (2007). Korean adults' conception of filial piety: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7th Biennial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p.181. July 25-28, Magellan Sutura Harbour, Kota Kinabalu City, Malaysia.
- Kim, U. (2002). Unraveling the complexities of human destructiveness, creativity, and potential: Indigenous analysis of the self, relationship, cultures and civilizations. Presidential address of Division of Psychology and Nat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Singapore, July 7-12.
- Kim, U. & Park, Y. S. (2004). Indigenous psychologies. In C. Spielberger (Ed.), *Encyclopedia of applied psychology, vol 2*. 263-269. Oxford: Elsevier Academic Press.
- Kim, U. & Park, Y. S. (2008). Chapter 21. Cognitive, relational and social basis of academic achievement in Confucian cultures: Psychological, Indigenous, cultural perspectives. In R. Sorrentino & S. Yamaguchi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within and across Cultures*. 491-515.
- Kim, U., Yang, K. S., & Hwang, K. K. (Eds.) (2006).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Understanding people in context*. 24-48. New York: Springer.
- Park, Y. S. (2002).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ubjective well-being: Redefining human agency and meaning systems. Invited address at the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p.101. July, 7-12. Singapore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Singapore.
- Park, Y. S. (2008). Parent-child relationship, academic achievement and quality of life: The role of self-regulation, social support, and

efficacy beliefs in Korea. Invited keynote address at the XXIX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p.168. July 20-25, International Congress Centrum Berlin, Germany.

1 차원고접수 : 2009. 04. 09.

수정원고접수 : 2009. 05. 13.

최종게재결정 : 2009. 06 .09.

Filial behavior, expression and its importance as perceived by parents of high school students: An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Park, Youngshin

Departmen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Kim, Uichol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ha University

Shin, Youngyee

Departmen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filial piety among parents of high school students and its relationship to child-rearing efficacy and family life-satisfaction. A total of 866 participants (433 fathers, 433 mothers) completed a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present authors and the child-rearing efficacy scale developed by Bandura (200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arents perceived obedience as the most representative filial behavior of their children, followed by taking care of parents, assisting parents, and being affectionate, sincere and healthy. As for the expression of filial piety as perceived by parents, the most frequent response was proper manners, followed by expressions showing support, obedience, willingness to fulfill parental expectations and studiousness. Third, when their children did not exhibit these characteristics, a majority of parents reported that they would experience feelings of being saddened, followed by feeling disgusted, feeling the need to self-reflect, try to understand their children's perspective, disappointment and that they would be taken aback. Fourth, the participants believed that their children should be filial for the following reasons; it is their human responsibility, followed by consanguinity, to aid the proper development of their character, to promote harmonious family relationships, for the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 and returning the sacrifices made by their parents. Fifth, as for unfilial behavior, respondents listed disobedience, followed by problem behavior, failing to meet parental expectations, upsetting one's parents, ignoring one's parents, not being studious, and insincerity. Sixth, as for filial behavior that is most moving, the participants listed being studious, followed by being obedient, sincere, taking care of one's parents, being affectionate, using words that express closeness, and being healthy.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for Korean parents and for the indigenous psychological approach are also discussed. As for children's filial behavior towards their parents, path analysis indicated that it had a direct and positive effect on the levels of family life-satisfaction and parents' child-rearing efficacy and the latter had a direct positive effect on family life-satisfaction. Children's filial behavior had twice as much an impact on family life-satisfaction than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Children's filial behavior not only increases their parents' child-rearing efficacy but the levels of their family life-satisfaction.

Key words : filial piety, indigenous psychology, obedience, studiousness, child-rearing efficacy, family life-satisfaction